

Ayn Rand 와 오늘날의 기업 윤리

Stephen R. C. Hicks

철학과

Rockford College

윽진이

Ryan C. H. Park

서론: 기업 (Business) 과 자유사회 (Free Society)

자유사회를 지지하는 주창자들은 기업을 동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구성요소로 여기고 있다.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문화의 발생과 장려는 서양사회에 막대한 양의 생산 능력을 불러 일으켰다. 기업 전문가들(business professionals)은 과학적 발견과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농업, 교통, 그리고 의학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또한 예술의 성과도 마찬가지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예술을 접할 기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몇 백년전 그 누구도 예상했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식량을 가지게 되었고, 더 높은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더 많은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영화, 그리고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접할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의 성과는 서양사회에서 인간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최근에 여러 동양사회에서도 발견된다. 과거에 단 10%의 인구만이 편안한 삶을 누리던 반면 나머지 90%의 인구는 바듯한 삶을 살던 시대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우리들은 무려 90%의 인구가 편안한 삶을 살고 10%의 인구만이 바듯하게 살고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나머지 10%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경제학과 정치학분야를 위주로 자유사회에 대한 각종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로 개인주의 (individualism)을 들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여러명의 자율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인 교환, 상품,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그 시작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장소에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는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개인권리(individual rights)와 정부 권력 제한(limiting government power)을 지켜내는 것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펼쳐진 개인들의 창의력과 열의를 억누르는 전횡(arbitrariness)과 무능력화(stultification)을 막아내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보여지던 개인주의 이론들만이 오늘날의 눈부신 성과들을 얻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주의 이론들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오고 있으며, 많은 수의 유능한 지지자들이 이 이론들을 뒷받침해 왔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반(反)개인주의 지지자들 마저도 개인주의 옹호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듣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윤리학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그 상황과 이해에 있어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적용해 온 개인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윤리학에서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egoism)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명제가 된다: 각각의 개인이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된다는 관점 그리고 개인들 자신의 이해관계 증진은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관점. 하지만, 전통윤리학(traditional ethics)에서는 바로 이 이기주의가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전통윤리학은 사업계(business world)와 같이 스케일이 크면서 시종일관 모순이 없어 보이는 이 이기주의 정신의 표출을 항상 문제삼아 오고 있다. 사업계란 개인이 각자 삶의 계획을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며,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와도 같다. 기업은 이기심(self interest)과 이런 이기심의 도덕적 평가가 뒤섞이며 운영되는 사회와도 같으며, 바로 이러한 이기심에 대한 이해는 사업계 전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좌우하게 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사업계가 의존하고 있는 이기주의 (egoism)에 대한 변호에 있다. 기업은 한마디로 생산 그리고 교환에 그 주된 의미가 있다. 생산은 개인들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 그리고 어떻게 그 필요를 충족시키느냐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의 총체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환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개인들의 의지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책임감, 이성(rationality), 그리고 협력과 같은 신념들은 건강하면서도 도덕적인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 방침들이며, 사업계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원칙들을 이룬다.

물론, 모든 개인들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감있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사업계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일종의 변이와도 같다. 기업은 사업계에 있는 개인들이 생산적이며 협력적일때 존재하며 그리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윤리또한 어떠한 원칙들이 이 개인들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이며, 그리고 비협력적인 개인들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기업윤리학의 한 부분에서는 생산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무책임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지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는 현재의 기업윤리 이론에 대한 재조명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지배적인 기업윤리학은 정반대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원칙적으로 비도덕적(amoral)일 때도 있고 부도덕적(immoral)일 때도 있다란 주장과 윤리적인 기업들의 행동들은 거의 예외에 가깝다라고 보는 주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의 핵심은 교육, 과학, 그리고 예술과 같은 다른 전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라는 점에 필자의 논제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 전문 교육분야에서는 세대와 세대간의 지식 전달이라는 가치를 생성해낸다. 과학분야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란 가치를 생성해내며, 예술분야에서는 중요한 인간사상을 표현하는, 혹은, 자아내는 여러 사물들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물론,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일부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교육, 과학,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대변하는 장본인으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이 전문분야는 여러 윤리학자들로부터 특별히 문제되어지는 한 분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거의 모든 오늘날의 기업윤리이론들은 오히려 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것은,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제안된 해결방법들이 오히려 해결하려고 한 문제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필자의 논제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에 있다.

1. 오늘날 기업윤리학의 요점을 묘사하는 것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기심(self interest)과 이익추구동기(profit motive)는 도덕적이지 않고, 이타(利他; selflessness)란 윤리적인 행동에 있어 필요조건이다.
2. 이기심의 철폐와 이타정신의 장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윤리학 체계에 이론적 고려사항(ethic-theoretical considerations)들을 엄밀히 조사해 보는 것 - 경제활동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뺏고 빼앗기는 zero-sum 방식의 분배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본성은 본래부터 파괴적이다.

3. 이기심의 이성적 개념은 인간 본성이 파괴적이고 경제원칙이 zero-sum 방식의 분배에 불과하다란 이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 - 인간은 자신들의 삶을 중시하며 그 자신들이 삶의 목적까지 된다. 윤리학에서는 생산에 있어 여러 조건들이 중요시 된다. 그리고 그 생산에 적용된 여러 이유들이 사실상 강자와 약자간의 뺏고 빼앗기는 식의 zero-sum 경제방식이란 시나리오를 없애 줄 것이다.
4. 이성적인 이기심에 대한 가치 체계가 기업윤리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 - 생산과 교환이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상호간에 합의된 조항에만 따라 교류하는 책임감있는 사람들로 보여진다.

근래의 연구 보고서: 비도덕적으로 때론 부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기업

기업윤리를 다루는 오늘날의 여러 연구 보고서들은 기업은 기껏 잘해야 도덕이라고 불리우는 그 질서와 규율들이 적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하나의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여러 활동들은 부도덕(immoral)적이지 않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도덕적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같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기업윤리 이론들중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논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사고와 기업을 돌아가게 하는 고려사항들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은 이기심과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모든 기업윤리학자들에게는 이 이기심과 이윤추구는 비도덕적이거나 부도덕적이기 때문이다.

철학자이자 *Journal of Business Ethics* 의 주편집장인 Alex Michalos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한사람이 이윤 증대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행동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실이다.”¹ 여기에서 Michalos 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다. 이윤추구와 도덕적 행동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해있다는 주장은 논쟁 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도 안목이 있는 두명의 경영학과 교수들은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번째로는, 기업의 관리직 인원들은 그 기업 주주(株主)들의 대행인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그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경영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원칙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익과 책임이 따르는 원리로 본다면), 경영에 있어 여러 결정들을 내릴때 반드시 도덕적 원칙에 의거한 판단이 주된 결정 동기(motivation)가 되어야 한다.”² 여기에서 우리는 도덕적 사고와 기업주주들의 이기심은 서로 뚜렷이 대조됨을 알수 있다.

하바드 대학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Amartya Sen 은 윤리학과 경제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성(rationality)에 대한 이기적인 관점은, 그중에서도 특히, 동기에 대한 윤리학적 관점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있다.”³ 여기에서 우리는 이기심에 근원한 동기와 도덕적 동기에 큰 차이를 알 수 있다.

저명한 기업윤리학자인 Tom Donaldson 과 공동 집필자인 Al Gini 는 “비록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이미 통상적인 방법이라거나 혹은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이 된다고 하여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윤리학적으로 볼때 그 행동들이 가치가 있는 행동들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⁴ 우리는 알 지니의 말에서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이기심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목록은 무한정으로 열거되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된 학자들과 그들의 발언들은 기업윤리학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이들로부터 인용해 온 것이다. 여기서 온건파란 기업 그 자체에 적대적이지 않은 기업윤리학자들을 뜻하는 것이며, 혹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정부개입을 지지 하는 기업윤리학자들을 뜻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들의 요점은 윤리학과 이기심의 분리는 오늘날의 기업윤리 보고서들에 있어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여러 학자들은 두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 도덕성(morality)과 이기심(self interest)은 각기 다른 장르에 속하며, 이 두가지 사이엔 그 어떠한 대립성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는 그룹.
- 도덕성과 이기심은 각기 다른 장르에 속하지만, 이 두가지 사이엔 일반적인 대립성이 존재 한다라고 보는 그룹.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학자들은 이기심과 도덕적 숙고의 결과는 상호 불일치하기도 하지만, 때론 일치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업윤리학의 일반적인 목적은 기업들로부터 스스로가 도덕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관점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만약에 이 두가지 관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자신의 이기심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도덕성과 이기심은 항상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철학자인 Norman Bowie 는 “의도적인 개인 이익의 추구는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이들의 이익추구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⁵ 라고 지적한다. 기업윤리학자인 Oliver Williams 는 기업윤리에 관한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 할 가치들과 여러 성공적인 회사들의 극히 다른 관점에서의 가치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손쉽게 얻을 만한 해결방법은 없다.”

⁶ 이와 더불어, 널리 잘 알려진 기업윤리 교과서의 집필자들인 William Shaw 와 Vincent Barry 는 “도덕성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제시켜 줌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⁷ 라고 적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기심은 정의, 도덕성, 그리고 공동이익에 분명한 적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의 인용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무한정으로 열거되어 질 수 있다.

이 두번째 그룹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윤리학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도덕성의 이름으로 기업들의 이기주의적 활동들에 반대하고, 그 기업들의 이익추구를 제한하며, 그들이 만들어 낸 이윤들을 보다 더 이타적으로(altruistically) 분배함에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이익증대를 반대하는 다른 사회 기관들의 힘을 증가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윤리학의 역사로 비추어 본 기업윤리

윤리학역사의 정황을 살펴 본다면,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기업윤리는 실용학문(applied discipline)이고, 누구나가 그것에 윤리학적 원리를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Plato 에게서, 때론 약간은 미약하게 Aristotle 에게서, 우리는 실용적인 일들은 저속하며 진부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배운다. 본래부터 이러한 실용적 경제조직의 한 단위로서의 기업에게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Plato 와 Aristotle 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왜 사회에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경멸감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잠시나마 할 수 있게 된다.

Immanuel Kant 의 글에서 우리는 의무로서의 도덕적 동기와 하나의 정신적인 경향으로서의 이익추구를 위한 동기에는 절대적인 이중성(duality)이 있다고 배운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향한 조그만한 기미조차도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기업은 이익에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은 본래적으로 도덕적이지도, 그렇다고 부도덕적(immoral)이지도 않은 비도덕적(amoral)이 되는 것이다.

John Stuart Mill 은 우리에게 단체를 위한 이타적인 자기 희생은 도덕성의 기본이고, “치사한 개인주의(miserable individuality)”⁹ 에만 관심있는 사람들만큼 나쁜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은 이타주의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단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로, 그리고 자기 희생보다는 이익추구의 동기로 움직여진다. 그래서, 기업은 때론 비도덕적이되며, 때론 부도덕적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Christianity)와 막스주의(Marxism)에서는 우리는 집산주의 (collectivism)와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의 주요 우화로 인간들의 죄(sins)를 씻기위해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는 고난을 겪는 예수가 있다. 이 우화는 첫번째로 희생정신의 필요성을 예증하고 있다. 약하고도 부도덕한 다른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는 강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강함과 도덕적임을 희생함으로서 약함과 부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기독교의 우화는 집산주의를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얻은것들은 예수의 희생이 그 한 몫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산주의정신은 원죄란 교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한 책임에 있다.) 막스주의의 주요 슬로건중 하나는 “능력에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¹⁰ 라는 것이 있다. 이 슬로건은 일부사람들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반면, 일부사람들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은 한 집단의 재산이며, 개인의 재산은 다른이들이 받을자격이 있든 없든간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막스주의는 이기심과 도덕성은 서로 대립한다고 보고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기업윤리학이 수 천년동안 윤리학의 역사속에서 보고 배워왔던 지배적인 주장들을 오늘날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윤리학자들이 기업에게 그들의 이윤을 희생하라고 요구 하는데 왜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왜 기업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기업윤리학의 주제들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설명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전문가들은 그들 자신들의 이익에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데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권위를 앞세우는 대부분의 기업윤리학자들이 그들의 이윤추구와 이기심에 난색을 표하고 있거나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있음을 그들 자신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이기심과 도덕성의 이중성은 오늘날의 기업윤리학에서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철학논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자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그런 철학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활동의 옹호자들은 제한된 회사 조직의 형성, 선물(先物)이나 가짜 담보의 도입과 같은 특정한 이기주의적 기업활동이 생산적이면서도 상호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win/win 경제방식의 원칙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한 예들은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의혹심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

환경보호주의의 일부 거짓된 평판들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혹은 “산업화학물들이 모든것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자명한 진리로 받아 들이고 있다. 과학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도 충분한 석유가 있다”라든가, 혹은 “Alar (식물생장 조절 화학제)는 무해하다”라는 식의 증명을 해 냄으로서 이러한 특정한 주장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경주의자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데 여념이 없고, 그들은 더 많은 수의 위협들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논제들은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기심은 도덕성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논제또한 기업의 이기심에 대한 일반적인 의혹으로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자에 의한 일종의 주식매매는 그리 나쁜것이 아니다란 식의 설명은 기업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발현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데 그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기심에 관한 일반적 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기심과 도덕성을 각기 다른 분야로 취급해 왔을까?

비도덕/부도덕으로서의 이기심

이기심이 기업활동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의 경우에 있다. 첫번째로, 이윤추구동기(profit motive)는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을 해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기심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sins of commission)를 짓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자 주식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논쟁을 볼때, 이 내부자는 다른 일반인들 보다 불공평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기심이 이런 혜택들을 챙기게 한다. 두번째로는, 이윤추구동기는 자신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지 않게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이기심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sins of omission)를 짓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공장재배치에대한 반대주장은 단순히 그 회사가 노동자들의 권리에 해를 입힌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회사라면 공장 재배치가 회사에게 가져다 줄 이윤획득의 기회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에 대한 부담은 다음과 같은 곳에 있다. 이기심은 개인들로부터 남의 이익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의무감과 그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지르게되는 죄의 경우에는, 이 이기심이 개인들을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이득을 챙길 기회를 포기해야만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지르게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것이다. 둘다의 경우, 각 개인들의 이익충돌은 당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음에는 이 이기심의 두가지 죄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이기심과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되는 죄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되는 죄에 관한 논쟁들을 상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여러 상충되는 부분들을 나열해 보기로 하자. 기업과 소비자 (거짓 광고와 독점적인 가격), 기업과 직원들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고용과 공장재배치), 그리고 기업과 다른 기업들 (치열한 가격전쟁과 내부자 주식매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것일까라고 묻게 된다. (1)이기심: 이윤획득을 위해서 기업은 소비자들을 속일 치밀한 계획을 짜며,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 할 각종 회사규칙을 정하고, 경쟁자들에게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킬 각오가 충분히 되어있다. (2)상대적인 약점: 소비자들, 노동자들, 일부 경쟁자들, 그리고 환경문제들은 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해줄 만큼 그들 편에서 있지는 않다.

다음 이러한 대립관계가 만들어 낸 결과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된다. 좀 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약한자는 잃게 될 것이다.

이제서야 우리는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게 된다. 이기심/이윤추구동기와 더불어 사람마다 달리 갖고있는 능력과 힘의 차이들은 서로간의 이익 충돌을 일으키며, 약한자의 손실로 강한자는 이득을 챙기게 된다.

우리는 다음으로 윤리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윤리학적 해결방법: 우리는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이기심을 자제하기를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비록 이윤획득이 기업의 주된 목적일지라도, 그 기회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해 주기를 요구한다. (2) 정치적 해결방법: 정부에게 기업에 관한 제제나 규정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약한자들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강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하면, 우리는 반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기업윤리학은 주로 이기심과 이윤추구를 억제하는 학문이 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의 출발점에는 소비자들간에, 직원들간에, 그리고 기업들간의 근본적인 이익분쟁이 존재한다. 일단 분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한 사람은 그에 맞는 일정한 원리에 기초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자신이 기업에 호의적인지 (소비자권리에 반대하게 되고, 노동자권리에 반대하게 되는 상황), 아니면 소비자권리 그리고 노동자 권리에 더 호의적인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권리에 반대를 하게되는 입장) 묻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는 이익분쟁은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이다. 이런 명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만일 도덕성에 관해 일반적이고도 근본적인 진리로서 이기심은 희생되어 져야 하고 제외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근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진리로서 이러한 이익추구들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명제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이것이 이익을 향한 피할수 없는 분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가 된다.

인간에 관한 다음 두가지의 생각들은 이익분쟁이 인간삶에서 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첫째로는 인간 심리학과 생물학에 관한 명제고, 둘째로는 경제학에 관한 명제이다.

제한된 자원들

그럼 경제학에 관련된 명제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명제. 부족(scarcity)이란 개념은 여러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인간들은 항상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바란다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이기심에 대한 주장들을 약화시키는데 사용되던 것과는 다르다. 만약에 문제가 간단히 우리는 더 많은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생산이 해결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윤리학에서는 기근에서 벗어나 생산을 하는 것을 달리 하나의 방법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 부족이란 개념은 맬서스주의(Malthusian) 혹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뺏고 빼앗기는 zero-sum 방식의 경제활동의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즉, 서로 나누어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서로서로를 분쟁의

관계속으로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배고픔과 자신의 배고픔은 둘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둘중 하나는 희생을 해야 하며, 희생 되어져야만 한다. 이 다음의 문제로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어져야 하느냐에 쏠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명선 시나리오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중에 하나다. 구명선 시나리오는 도덕성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경제사실을 잘 그려내고 있다. 남의 이기심과 자신의 이기심이 구명선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인해 대립하게 된다.

이 구명선윤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한다. 결정으로는 이기적인 방법과 이타적인 방법이 있다. 만일 필자가 나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나는 충분한 음식과 마실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할 것이고, 다른 그 누군가는 죽게된다. 나는 남의 손해로 나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꼴이 된다. 만일 필자가 다른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 시킬 것이다. 나의 손실로 다른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된다.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난투극이 일어나게 되며 그 구명선 자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반면에, 항해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시켜 바다로 뛰어든다면, 마찬가지로 그 배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산주의적(collectivistic)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것이 가장 논리적이 된다. 즉, 자신들의 이기심을 제쳐두고, 무엇이 가장 이 배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까? 누가 이 배의 생존에 큰 힘이 될까?

이러한 생각이 도덕철학에 의미하는 것은 이기심은 위험한 것이라란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선 이기심은 끔찍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강자에 의한 약자의 손해를 가져오며, 사회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기업활동에 의미하는 것은 이윤은 다른사람의 손실로 만들어 진다란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의 기업활동은 철저히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뺏고 빼앗기는zero-sum 방식이 된다: 이윤추구동기는 심각한 경쟁을 불러오고, 강자들의 약자들을 향한 착취가 전횡하며, 그리고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익분쟁은 제한된 자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진실로 인해 필요조건이 된다.

기게스(Gyges)/원죄(Original Sin)/본능적 충동(The Id)

인간 심리학과 생물학에 관한 연구 또한 이익분쟁이 필수적이라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인용구들을 살펴보자.

윤리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비판에 있어 널리 잘 알려진 작가 Brian Medlin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기주의옹호자(egoists)는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만 한다고 설교 조차 할 수 없으며, 그것만을 권장할 수 도 없다. 그가 그 자신을 돌보아야만 한다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할때, 그는 내가 그로 하여금 나의 맥주를 마시게 하고, Tom 의 부인을 흠치도록 허락할 마음이 내키게 하는것과도 같기 때문이다.”¹¹ 보수주의적 학자인 Charles Sykes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본위주의(egotism)의 핵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편견들과 꾸밈섞인 골칫거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어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는 한명의 개인이 그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기를 바라는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¹² 더불어서, 현재 널리 알려진 영국출신 소설가인 Anthony Burgess 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신의학적으로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뇌에는 이러한 성적인 충동과 지배력에대한 갈망 (필자는 고의로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 사이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경계관련 연락체계가 존재한다. 너무나도 쉽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을 감당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모두는 내적으로 참으로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¹³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윤리학이 반드시 다루어어야 할 인간 본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서로서로의 것을 흠치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부정한 짓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편파적이며,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만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한 폭력과 비난으로부터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랜시간 동안 이어져 온 반이기주의 주장의 중요한 논제들이다. 이런 이기심에 대한 대부분의 주요 철학적 반대자들은 인간 본성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냉혹하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있다. Plato가 주장한 기게스의 신화에서 얻게되는 교훈은 모든 인간들은 이미 야비하고도 저속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오랜 시간의 노력끝에, 이러한 면들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인간은 파괴적이며, 반항적이며, 우리 모두는 아우 Abel을 죽인 Cain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 Sigmund Freud의 본능적 충동이란 Id의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학대하기를 원하도록 이끄는 불합리하며 거의 통제불능의 본능이 우리안에 존재 하고 있음을 알린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보상없이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동의없이 성적으로 그를 이용하는 것, 그의 재산을 가로 채는 것, 그를 비난하는 것, 그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리고 고문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다 *Homo homini lupus*¹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윤리학 이론의 핵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인간본성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각 개인은 다른 이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된다. 그런 우리에게는 두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가 이기적이 되어 자신의 동물적 본능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인간살은 더럽고, 외롭고, 육욕적이며, 그 지속시간이 짧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시민사회는 무너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시민사회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반이기주의 정신을 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신을 온순화시키고 내재되어있는 이기심을 억제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여전히 윤리학의 본질은 언제나 이기심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해결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방안들은 항상 이기심의 희생과 제지를 주장하게 된다.

경영의 상황에서 보았을때, 우리는 협동과 상호편익이기 보다는 적개심과 지배욕이란 원칙들이 각 개인들에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기간의 이익이나 힘에 대한 표현과 같은 단기간의 욕망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혹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Roger Dawson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경영의 관점에서 볼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탁자 건너편 남자의 계획이나 희망을 논파(論破)할때 그것은 협상하는 것이 되며, 그가 그것을 고마워할때는 바로 그건 당신의 힘이다.”¹⁵ 협동이나 장기간의 관계유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의 억제가 기업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논제가 될 것이다. 기업윤리학은 이기심의 욕망을 억제시키고 그것을 제지하는 방법을 찾는데에 영원히 방심해서는 안되게 될 것이다.

이제서야 우리는 이익충돌은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두가지의 주장을 알게 되었다. 제한된 자원에 관한 주장은 교육(nurture)이 천성(nature)을 앞선다라고 강조하는 좌익단체(leftists)에 의해 종종 듣게 되는 주장이고, 파괴적인 인간본성에 관한 주장은 반대로 천성이 교육을 앞선다라고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룹의 사람들로 부터 듣게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주장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이익충돌은 존재한다라는 것과 이기심은 제지될 필요가 있으며 윤리학은 이런 제지 속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두쪽의 주장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과 이기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반된 그룹에 속한다는 말하고 있다.

이기심(Self Interest)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sins of omission)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에 관한 주장을 이기심에 결주어 보았을 때, 이익충돌이란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 살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 만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통에 처하거나 죽게 된다.
- 그러나 능력이 있는자의 이기심은 능력이 없는자의 필요충족을 위해 희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자의 이익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이익과 충돌을 갖게 된다.
- 이타주의적 명제: 무능력한 사람의 이익추구는 능력이 있는자의 이익추구보다 더 중요하다.
-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자는 능력이 없는자의 부족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기심은 부도덕(immoral)한 것이다 (주장의 여섯번째와 세번째 명제에 의해).

위와같은 분석의 시작점은 능력이 없는자의 이익관계는 능력이 있는자의 그것들과 대립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대립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원칙에 의거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단지 한쪽의 이해관계가 만족되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타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능력이 있는자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거나, Friedrich Nietzsche 와 사회적 다윈주의자(Social Darwinists)들이 주장하듯 능력이 없는자의 이해관계를 희생시켜야 할 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능력이 없는자를 돕기위해 능력이 있는자의 희생을 요구하는것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것만큼이나 가혹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주의적 결론을 얻게 된다. 능력이 없는자의 필요충족이 반드시 앞서야 하고, 능력이 있는자의 이기심이 그것과 대립되기에 그러한 이기심은 반드시 희생되어야만 한다.

이번에는 인간의 무능력을 윤리학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근본임을 말하면서 위의 주장은 다시 이익충돌이라는 또 다른 명제가 된다. 만일 우리가 필요충족과 무능력을 윤리학의

기본으로 받아 들인다면, 이익충돌은 필수불가결해지며,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되어야 한다. 이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능력이 있는자의 이기심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업윤리에 적용해 볼때, 기업윤리는 부분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그들의 이기심을 능력이 그들보다 적은 이들을 위해 희생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이타주의는 다음의 두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a)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업자신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b) 세금, 렌트 규제, 그리고 최저 임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wealth)의 정부차원적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이다.

요약: 왜 이익충돌인가?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익충돌은 필수적이다란 결론을 얻게 된다. 각각의 경우, 이기심의 희생은 자신은 자신을 제지하도록 요구되어진다거나 자신은 자신의 재산 일부분을 포기하도록 요구 되어진다는 윤리적 기본으로 주장되어 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윤리학 이론으로부터 이러한 논제들을 일반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기업윤리학에 다가가게 된다.

1. 기업은 이익을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그들의 이익이 다른사람의 손실로 만들어졌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한다. 마치 기업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는 win/lose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겨진다.
2. 기업은 그 취지에 있어 이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들이 지고 남들이 이긴다는 식의 lose/win의 경제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한쪽은 이타적이어야 한다거나, 이타적인 행동으로 도덕적 신뢰를 얻게된다고 알고있다. 그래서 기업은 비도덕적(amoral)이거나 부도덕적(immoral)이다.

이중성(Dualism)의 결과: 표적 불평등(Target Inequalities)

모든 전통 윤리이론에서 이기심은 도덕성의 표적이 되지만, 그것은 특별히 목표가 되어지는 더 잘난, 더 강한, 더 능력이 있는, 그리고 더 부유한 자의 이기심을 뜻한다. 조금 더 강한자는 약한자에게서 이득을 챙길 더 좋은 기회에 있으므로, 특별한 제지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강한자의 이기심이다. 약한자를 돕기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강한자이기때, 바로 정복되어야만 할 것은 강한자의 이기심이다. 두가지의 경우에서, 힘의 불균형, 능력의 차이, 그리고 부의 불균형은 굉장한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의 차이가 커질수록 도덕적의무와 강자약자의 주장의 관계성을 분열시키게 된다. 좀 더 강한 사람들을 제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자원들을 약한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약한자들은 강한자들에 의해 생긴 여러 해(harm)를 상대로 일부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약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강한자를 대항하는 그들의 목소리 또한 더 커져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윤리학은 기업거래의 분석은 그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의 힘의 상대성 비교로부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때 저지르게 되는 죄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큰 규모의 기업들은 그들의 공장부지를 옮길 것이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것이다. 분석: 기업은 “강한자”이며 많은 노동자들은 “약한자”가 된다. 해결방법: 기업은 공장부지를 옮겨서는 안되며, 이익증대기회를 희생하고 노동자들의 이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이기심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대도시 중심부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미지불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잃게 한다. 분석: 은행들은 부유하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거주자들은 가난하다. 해결방법: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해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 이기심은 일부 회사들로 하여금 기술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한다. 분석: 회사업주들은 기술력이 없는 노동자들 보단 경제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 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일부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 출산 휴가: 기업들은 임신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분석: 기업들은 강하지만, 임신한 여자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해결방법: 여성들은 출산휴가가 끝났을때 자신이 일하던 직책을 유지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경우, 분석에선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고, 약자를 돕는 강자의 희생을 요구한다. 같은 분석과 해결방법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sins of commission)에서도 마찬가지다.

- 방송전파와 미국정부의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전통적인 공정의 원칙(Fairness Doctrine): 만일 방송전파가 잘 관리 되지 않는다면, 큰 규모의 라디오 기업(강자)들은 왜곡된 기사로 일반 시민(약자)의 정치적 의견들을 교묘하게 조작할 것이다. 해결방법: 연방 통신 위원회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기사거리의 내용을 단속해야만 한다.

- Laetrile과 같은 실험용 의학 약품: 이익을 만들기위해 의학 약품 회사(강자)들은 불치병자들(약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할 것이다. 해결방법: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과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학약품의 시장거래를 단속해야만 한다.
- 조제 분유(infant formula): 규모가 큰 서양 기업(강자)들은 가난하고, 글자를 모르는, 그리고 다른나라의 엄마들(약자)을 상대로 이득을 취할것이다. 해결방법: 판매를 제한하고 광고를 못하도록 판매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 담배나 술과 같이 위험성있는 물건들의 광고: 큰 회사(강자)들은 소비자들의 가치와 기호를 광고를 통해 조작할 것이다. 해결방법: 그와 같은 광고들을 단속하고 없애야 한다. 혹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기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제품이 큰 위험이 된다고 광고한다.
- 아파트 렌트: 부유한 지주(강자)는 주민(약자)을 상대로 높은 가격을 부를것이다. 해결방법: 부유한 지주의 희생으로 가난한 주민을 돕기위해 정부의 집세 통제를 부과한다.
- 내부자 거래(Inside Trading): Wall Street 투자자(강자)는 Main Street의 소규모 투자자(약자)를 상대로 이득을 챙길 것이다. 해결방법: 내부자 거래를 통제하고, 대규모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정보공개와 같은 정보를 소규모의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한다.
- 임금: 고용주(강자)들은 생계 유지 비용만을 고용인(약자)들에게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해결방법: 부유한 고용주들의 지불로 가난한 고용인들을 돕기위한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 고용 정책: 기업(강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처럼 행동할 것이고, 유망한 고용인(약자)을 위주로 존재 한다. 해결방법: 차별 철폐 조치를 확립하여 여건이 좋은 사람들의 지출로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다.
- 제품 안정성: McDonald 기업(강자)은 컵을 안전하게 놓아 둘 곳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나이 많은 할머니(약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팔 것이다. 해결방법: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강화한다. 16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는 강한자와 약한자를 구분하였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의 이해관계가 필수적인 대립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후,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자의 이기심을 제지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약자의 이득을 위해 강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곤 했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볼때 기업들은 강자에 속하고, 오늘날의 기업윤리학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방어책을 주고 기업들의 힘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둔다.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들이 강자에 속하며, 오늘날의 기업윤리학은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책을 제시하고 고용주들의 힘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둔다. 작은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큰 기업이 강자이며 기업윤리학은 두려움의 대상인 다국적기업을 무기력하게 하고 작은 기업들에게 힘을 받쳐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업윤리를 얻게 된다. 도덕적인 큰 규모의 기업은 자신이 얻은 대부분의 이득을 자선활동에 기부할 것이다; 그런 기업은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이득을 챙기는 기회들을 줄일 것이다; 광고에 있어서도, 힘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덜한 설득력으로 다가 설 것이다; 소규모상들에게도 경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로 이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을 할때에도, 만일 고용인들이 필요로 할때, 일부의 이득권을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에게 그들을 제지시켜 줄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일이 약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해줌으로서, 강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그리고 강자로부터 약자에게로 부(wealth)를 재편성함으로써 약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기업윤리는 이를 바탕으로 두 당사자들이 적대관계에 있도록 조성한다: 기업과 소비자, 고용주와 고용인,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그리고 기업과 정부.

이것은 자유기업을 옹호해 온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윤리하고는 정반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윤리학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주장해왔더라기 보다는 자유시장제도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위에 언급된 여러 해결방안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의욕을 훼손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의 원칙마저도 침해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기업에 대한 도덕적 반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윤리학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용적인 일들은 도덕적인 일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 재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얻으려는 의욕은 단순히 이기심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은 제한, 제지, 그리고 극복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기심이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으로 보이는 한, 이윤 추구하고 재산권의 실지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성공밖에 불러 올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동의 할 수 도 있겠으나, 그들은 수준이 높다는 도덕적 고찰이란 명목으로 여전히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이윤획득의 기회들을

희생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 또한 결국엔 이기적인 고찰일 수 밖에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필요한것은 바로 이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심에대한 도덕적인 변호에 있다. 우리들이 그러한 변호를 확립시키기 전까지는, 자발적이든 정치적으로 강요되었든간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여러 규제방안에 있어 기본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기심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윤리학에 있어 이익충돌 이론이 근본을 이룬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의 기본 골격은 또한 비관적인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적 명제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들은 이기심이 장기간 인간의 생존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들이다.

이쯤해서 필자는 Ayn Rand 가 제시한 대안들을 살펴보려 한다. Rand 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윤리학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오고 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그녀가 바로 이 이기심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있다. 도덕성은 이기심을 자제하고 희생하는데 있다고 여기는 윤리학계에서는 이러한 Rand 의 관점은 약자를 상대로 강자는 무엇이든 원하는 데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나긴 윤리학의 역사로 봤을때,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학계의 반대여론은 Rand 가 반대해 온 경제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주장들을 근거로 그녀의 이기심에 대한 지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녀는 윤리학이 이익충돌 이론을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한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녀는 윤리학이 고갈된 자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서 부터 시작한다는 주장 또한 부정하고 있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하기를 원하는 비열한 일들을 윤리학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주장마저도 반대를 하며,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것으로 부터 윤리학이 시작한다는 주장 또한 부정하고 있다.

그럼 Rand 의 주장은 무엇일까라고 묻는것이 철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Ayn Rand 의 윤리학

Rand 의 주장에 따르면, 윤리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좋은”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이 “나쁨”의 표준이 된다. 윤리학은 그래서 삶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생물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삶의 영위에 필요한 가치들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각각의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가치들을 얻느냐 못 얻느냐란 가장 근본적인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 가치들을 얻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 격이 된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을 얻는다는 것에는 전제 조건들이 따른다. 각각의 우리들은 삶에 필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배워야하고, 어떠한 행동들이 그 가치들을 얻는데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들을 배우는 데에는 생각한다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17

요약해본다면, 여기에서의 중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삶은 이용할 만한 가치들을 필요로 한다.
- 이용되어 질 가치들은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한다.
- 가치생산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행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요구한다.
-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함은 우리는 생각하고 배운다라는 것을 요구한다.

혹은 간단히 말해서,

- 삶은 가치에 달려있다.
- 가치는 생산에 달려있다.
- 생산은 지식에 달려있다.
- 지식은 생각함에 달려있다. 18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것들은 개인에 의해 성취되어지고 또한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는 이렇게 인간삶의 본질에 담겨져 있다.

생각한다는 필수조건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오로지 개인만의 정신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개인만이 그러한 생각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른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단계 한단계 이끌어줌으로서, 그리고 여러 함정들을 지적해 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 지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도와 줄 뿐이다. 그들이 얼마만큼 도와주든지 간에 개인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다.

지식과 같은 좋은 생각의 결과는 개인의 정신에 남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솔선에 의해서만 생산적인 용도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오로지 자신들만이 그들의 지식을 현실에 맞게 적용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개인들은 그들의 머리속에 같은 종류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

개인들이 그들의 각기 다른 지식들을 이용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다 함께 협동적으로 일하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단체 프로젝트의 시작은 참여한 각각의 개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술선수범을 요구한다. 단체들이 일을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단체속에 있는 개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행동의 결과는 이행되고 사용되고 즐기게 될 여러 가치들에 있다. 여기에서 다시, 개인이 바로 현실에 있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들만이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들만이 야채를 먹을 수 있으며, 우정을 나누며,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두명의 개인들이 야채와 우정을 나누며 지낼지도 모르나, 나눔으로서 느끼는 즐거움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수천명의 개인들이 같은 심포니연주를 들을지 언정, 그것은 각기 다른 수천명의 개인이 접하는 각기 다른 경험일 수 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단지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만이 알게 되며, 개인만이 행동으로 옮기고, 개인만이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삶은 개인적이 된다. 개인들이 가치생산자인 동시에 가치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들이 가치 추구의 수단이자 그 가치 추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속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개인을 위해 삶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기주의(egoism)가 의존하는 명제들이다. 이기심에 관한 윤리학은 인간의 삶은 개인적인 상황이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상황의 관리는 다음의 세가지의 예로 인해 개인의 책임이 된다. 첫번째로 개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하고, 두번째로 그들은 그들 생각의 결과들을 생산적으로 적용하여만 하며, 세번째로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생산적인 행동들의 결과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Rand의 윤리학의 기본은 이러한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의 필요성에 있다.

이러한 관점의 구성요소들은 다른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에 의해 주목받고는 있으나, 그것들은 윤리학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생산자의 요구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실(증거 없이 주장된 사실)들에 더 많은 우선권이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없는 사실들에는 이익 충돌은 필수적이라는 결론과 자원은 제한되어있다, 인간 본성은 파괴적이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필요충족이 우선이다라는 명제들이었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다루는 Rand 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비교했을때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제한된 자원에 대한 답변

부족한 자원 혹은 구조선(lifeboat) 경제학의 문제를 살펴보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식의 zero-sum 경제방식은 생산에 있어 문제가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나 하는대로 살아간다면, 혹은 공급이 제한된 환경속의 사냥꾼들이나 채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경제방식은 확실히 zero-sum 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력(reason)의 적용으로 인간은 순수 생산(net production)을 증대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이 가능해 지며, 과학과 함께 공학 기술과 과학 기술이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서, 사고력은 단순히 사냥이나 채집이 아닌 생산을 가능케 한다. 만일 생산이 가능하다면, 경제학은 구조선에 있는 생명들에 관한 연구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간 삶에서 부족한 자원이 필수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기심의 대립을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원은 절대 제한되 있지 않다. 필자는 상품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여러분들과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만들어 냄으로써, 필자는 상품의 공급 상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증대는 다른 이들의 손실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만일 필자가 옥수수의 더 우수한 이종방법을 알아낸 고안자라면, 필자는 현재 식량의 축적량을 증대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필자가 베틀(loom)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낸 발명가라면, 필자는 현재 의류 재고량을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전문직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하고 생산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이기심을 위하듯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대립이라기 보다는 이기심의 근본적인 조화(harmony)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나의 생각과 생산 능력이 그렇듯, 남의 사고와 생산 능력은 상품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물건교류를 가능케도 한다. 19

(이것은 과학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주요 윤리 철학이 형성되고 산업혁명 전에 인간의 생산 능력의 전환을 불러 온 중요한 역사적인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 사고력의 힘과 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생산은 달리 다른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점은 분배에 있어 뺏고 빼앗기는식의 경제 방식으로 눈을 돌렸었다.)

기게스(Gyges)/원죄(Original Sin)/본능적 충동(The Id)에 대한 답변

지금부터는 우리는 파괴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의 충동은 필수적이다란 전통적인 주장을 살펴보자. 이 주장은 우리의 욕망은 원시적이고,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힘에 의해 형성되며, 사고력은 우리의 가치형성이나 감정들을 결정할 그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에 감성이 이성보다 앞서고 더 강하다면,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관계는 필수적이고 그에 상응한 자기 자제력 또한 필수적이 된다. 반면에, 감성이 이성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라면, 충동이나 대립관계는 불필요해진다.

Rand 는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백지상태(*tabula rasa*)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고력은 한 개인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성은 한 개인의 가치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보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절대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한 개인의 가치체계나 성격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안 좋은 특성을 억누른다고 보다는 훌륭한 인격의 형성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윤리학적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학은 자기제한(self-restraint)이라기 보다는 자기개발(self-development)에 관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 간에 내재적인 대립관계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들이 그들의 장기간의 이성적 이득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이기심은 윤리학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전통학자들의 주장과 Rand 의 상반된 두 주장들중 어느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선천론(nativism)과 백지상태(*tabula rasa*)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지금부터 다른 한 개의 제한된 논쟁거리를 더 살펴보려고 한다. 감성이 얻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많은 개인들이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깊지 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누군가가 이성과 생산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좋은”의 기준이 된다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단기간의 이득을 취할 기회는 주어지게 되었고, 그는 그러한 기회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했다고 하자. 백만불을 훔칠 기회가 있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누구인들 하지 않겠느냐?

Rand 의 일반적인 해결방안은 명확하다. 윤리학적 기본은 바로 ‘삶은 생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원칙들이 바로 도덕적 핵심이라는 것이다. 생산은 또한 지식,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성실함을 요구한다.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때, 생산과 교류는 정직, 정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협동을 요구한다. 도둑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기생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류란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류 자체를 할 능력 또한 없다. 도둑들은 이러한 생산과 교류의 체계를 약화 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들은 생산과 교류를 가능케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 그래서 도둑질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둑질이라는 단기간의 성과가 자신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올텐데도 불구하고, 왜 장기간의 생산에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란 질문을 가지게 된다.

이런 주제는 한사람의 남은 인생으로부터 단기간의 기생생활(parasitism)을 구분해 준다. 한사람의 삶은 장기간의 자기 헌신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갈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장기간의 원칙들을 요구한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그 사람의 장기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반면에 도둑은 이번은 조용히 넘어가겠지란 단기적인 생각을 한다. 그가 그렇게 넘어갈 수 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이란 예를 생각해보자. 두 상대자가 깊이 있게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서로가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어 장기간의 노력에 투자를 한다면, 그 결혼은 성공적이다. 이러한 관계속에 있는 남편이 출장으로 멀리 가서 매춘부와 같이 저녁을 보낼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그녀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매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질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일까? 만일 그가 결혼생활에 헌신한다면, 분명히 아닐 것이다. 매춘부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 정직함을 잃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결혼생활에 헌신하는 편이 아니라면, 그런 결혼 생활이 제공할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둘다의 경우에서, 그의 장기간의 이기심은 충족되지 못한다.

도둑질에 대한 유혹의 논제로 되돌아 가보자. 한사람의 삶과 그것의 의미는 결혼이나 결혼이 요구하는 원칙들보다는 더 깊고 더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한다. 한사람의 인생에 도둑질과 같은 기생생활을 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결혼생활에 매춘부와의 하룻밤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기간의 유혹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장기간의 목표를 장려하는데 있다. 이것은 한사람이 장기간의 이익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의 원칙을 지니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질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도덕성의 대립관계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도둑들은 얻기위한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덕성은 이러한 얻기위한 욕망을 비난한다. 개인들은 단기간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고, 열정에따라 움직인다는 관점을 받아 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얻기위한 욕망이 건강하고 도덕적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얻는 과정에 있어 옳고 그른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삶의 영위를 가능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육윤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의 자식이 흠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할려고 고집피운고, 어떤것을 얻기위해 다른아이를 때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이는 이기적이다. 그는 흠치는것, 고집피우는것, 그리고 때리는 것이 그의 목표달성을 위해 실용적인 수단이라 믿는다. 자기 자제력을 키우는데 있어 전통적인 교육방법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다: 그래 그런 것들은 너의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실용적인 방법이지만, 너는 너의 목표 혹은 다른사람을 배려하여 그런 수단들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에, 이성적 이기주의자의 모델은 이렇게 가르친다: 아니, 그것들은 너의 목표를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못한다. 대신에 생산성, 친절함, 그리고 협동심이 너의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더욱 더 실용적인 방법들이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기 목표 달성은 부도덕(immoral)적이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자기 목표 달성은 가치있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분쟁요소가 없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의 차이이다.

무능력자의 필요충족에 대한 답변

무능력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업윤리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서 그리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래의 초점은 자선활동을 부추이기기 보다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sins of commission)를 막기 위함에 있다. 자선활동의 증대 혹은 강요된 재분배가 보고서에 나타날때,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다: (a)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그것보다 앞선다, (b) 무능력자에 관한 문제해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렸다, (c) 자선활동을 하는 것은 이기심의

희생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d) 능력이 있는자는 자신의 재산들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 언급된 글을 볼때, Rand의 윤리학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 Rand는 개인들은 결코 다른사람들의 목표달성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집산주의자의 명제를 부정한다. 무능력자들은 능력이 있는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자의 필요충족이 앞서야 한다: 생산의 필수조건은 분배의 필수조건을 앞선다. 일시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은 한 사람의 이기심에 반대되지는 않는다. 만일 필자의 자선활동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필자는 분명 이득을 챙기게 된다: 더 많은 수의 이성적 생산자가 이 세상에 있을수록, 필자의 삶은 더욱 더 풍요로워 진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기 앞감당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 자선활동은 윤리학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논제거리로 여겨진다: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마땅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 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개인의 본받을 만한 의지로서 받아들여진다.²⁰

무능력한 사람에 관한 문제는 그것에 관한 장기간의 해결책이 없다면, 능력이 있는자와의 이해관계에서 근본적인 충돌을 야기한다. 그러나 개인들이 왜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없어지는 지에 관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장기간의 해결방안들은 가능하다. 만약에 문제가 제한된 자원이라면, 과학과 생산이 그 해결방안이 된다.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해들이 지적 될 수 있고, 비교적 손쉽게 복구 되어 질 수 있다. 강압적인 정치로 인한 가난은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릇된 정치는 자연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나쁜 판단력으로 인한 무능력 또한 수정가능하다.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갖고있는 소수의 개인들만을 남겨 놓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있는자의 자선활동이 유일한 대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있는자는 없는자를 돕기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선활동은 좋은 의지의 문제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²¹

결론

Rand의 주장에 있어 그 핵심은 인간 삶에서 사고력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데 있다. 이런 사고력은 과학과 생산, 장기간의 계획, 그리고 원칙에 따른 삶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익충돌이란 개념을 없애는 방법이다.

기업활동은 비로서 하나의 응용법이 된다. 사업계에서는 도덕적인 개인이 생산자가 된다: 스스로의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목표달성을 하는 개인으로서의 생산자. 도덕적 사회관계는 생산적인 개인들끼리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기업들과 소비자들,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교류하는 자기 자신들에게 목표달성에 있어 그 책임이 따른다. 그 어떤것도 다른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충돌의 요지가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남을위해 희생당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서의 무대립 원칙(non-conflicting principles)을 봤을때, 세세한 차이점들은 협상을 통해서 좁혀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이런 무대립 원칙을 권장하고, 협상된 계약들을 보호한다.

기업에 대한 객관주의(objectivism)적 옹호자들은 다음 세가지를 주장한다.

- 가치의 기준은 한 개인의 이기심에 있다.
- 기업활동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해 내는데 있다.
- 정부의 존재목적은 개인들의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들을 지켜내는데 있다.

이런 객관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그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윤리학에 관한 글에서, 그들은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익관계에서 서슴없이 자신을 희생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에 관한 글에서는, 그들의 이윤추구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힘을 지닌다고 말한다. 게다가 기업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자로서 자신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에 관하여서는 불간섭주의(*laissez faire*)는 개인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자유를 주어 서로에게 해를 입히게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회의 재산들을 공공의 이익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과 자유사회에 반기를 들어 온 반이기주의(anti-self interest) 윤리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주장들이 어떻게 자유시장과 이윤추구가 실제적인 성공을 그리고 어떻게 사회주의가 실질적인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200 여년동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 왔지만, 반대의견을 내 놓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기심과 이윤추구의 실질적인 성공을 지적하는 것은 도덕성을 다르게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으로 분류해 놓는 이들에게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전통 자유주의 정치에 관한 이해를 함께 병행한 이기심의 도덕적 변호만이 자유사회와 그것의 경제적 발동기인 기업을 진보 시킬 것이다.

일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학과 정치학의 발전에 있어 좋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윤리학에서 Ayn Rand 를 필요로 한다.

참고 문헌

5. Michalos, Alex. *The Society for Business Ethics Newsletter* 5:1 (May 1994); p. 6.
6. Quinn, Dennis P. and Thomas M. Jones. "An Agent Morality View of Business Poli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1995), 22-42; p. 22.
7. Sen, Amartya. *On Ethics and Economics*.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p. 15.
8. Gini, Al. "Speaking with Al Gini." Prentice-Hall Publishing Catalogue, 1995-1996.
9. Bowie, Norman. "Challenging the Egoistic Paradigm." *Business Ethics Quarterly* 1:1 (1991), 1-21; pp. 11-12.
10. Williams, Oliver F., Frank K. Reilly, & John W. Houck, eds. 1989. *Ethics & the Investment Industry*. Rowman & Littlefield; p.9.
11. Shaw, William and Vincent Barry. *Moral Issues in Business*. 5th ed. Wadsworth, 1994; p.16.
12. Kant, Immanuel. *Groundwork of the Metaphysic of Morals*. Translated by H. J. Paton. Harper Torchbooks, 1964; 397-398.
13. Mill, John Stuart. *Utilitarianism*. Hackett Publishing; p.14. (상호참조) p.11. and pp.14-16. 이 부분에서 Mill 은 공리주의(Utilitarian)의 원칙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신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이러한 정신은 개인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희생할 의지를 지녀야만 함을 요구한다.
14. Marx, Karl.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1875.
15. Medlin, Brian. "Ultimate Principles and Ethical Ego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35:2 (1957), 111-118.
16. Sykes, Charles. "The Ideology of Sensitivity." *Imprimis* 21 (July 1992); p.4.
17. Burgess, Anthony. "Our Bedfellow, the Marquis de Sade." In *The Norton Reader*, 6th ed., p.510.
18. Freud, Sigmun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W. Norton & Co., 1961; p.58. 영어로 "Man is a wolf to man"을 말하며, 라틴어로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9. Dawson, Roger. Nightingale-Conant Corporation 의 홍보 자료로부터 출처함, 1994.
20. 1992 년,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은 McDonald's 음식점에서 차를 탄 채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커피를 다리사이에 놓고 뚜껑을 열려고 했다. 그녀는 커피를 다리에

쏟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녀는 커피가 뜨겁다라는 경고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McDonald's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사건은 McDonald's 를 상대로 수백만불의 합의금을 받아 냄으로서 전국적인 뉴스꺼리가 되었다.

21. Rand, Ayn. "The Objectivist Ethics." In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4; pp. 15-23.
22. "사람의 정신은 그의 생존에 있어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삶은 그에게 주어지지만, 생존이란 것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의 몸은 그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지탱할 영양물들은 주어져 있지 않다. 그의 정신 또한 그에게 주어져 있지만, 정신을 이루는 내용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한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는 그의 행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가 음식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얻을 방법을 모른다면, 그는 그 음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는 수로(ditch)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의 목적이거나 그것들을 만들 방법에 대한 지식없이는 그것들을 만들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Ayn Rand, *Atlas Shrugged*. Random House, 1957; p.1012)
23. (상호참조) Ludwig von Mises: "생계유지수단에 있어 자연적 희소성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여금 다른 생명체를 삶의 투쟁에 있어 죽음과도 같은 적으로 보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자비한 생물학적 경쟁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노동분배(the division of labor)란 것이 개인들, 가족들, 부족들, 그리고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리 매김을 할때, 혹은 자리 매김을 하는 한, 양립할 수 없게 보였던 이해관계의 대립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라는 체제 아래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구 수에 이르지 않는 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어난 인력의 고용이 그 대가로 비례 이상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 이해관계의 조화는 대립의 관계를 대신하게 된다. 사람들은 급격히 제한된 공급상황에서 더이상 몫의 분배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 인구수의 증가는 개인들의 평균 몫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Human Action*, 3rd revised edition, p. 667)
24. Rand, Ayn. "The Ethics of Emergencies."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4.
25. 또한, 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지극 정성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생성할 능력이 있음을 판명해 온 유일한 경제체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 * *

이 글은 1995년 12월 29일 뉴욕에서 주최된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yn Rand Society 에서 소개된 강의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또한 *Journal of Accounting, Ethics & Public Policy*, Volume 3, Number 1 (Winter 2003), pp. 1-26 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Stephen Hicks 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Rockford College 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Hicks 교수는 SHicks@Rockford.edu 로 연락이 닿을 수 있으며, 혹은 그의 홈페이지 www.StephenHicks.org 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